

회 원 사 소 식

삼성전자(주)

소련에 TDX공장 설립

삼성전자(대표 鄭용문)는 최근 레닌그라드 서남쪽 2백 km에 위치한 스코프市에 국산 TDX 합작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삼성이 소련 통신업체인 ATE(Automatic Telephone Exchange)社와 합작으로 설립하는 이공장은 오는 96년이 후 연간 1백25만회선의 TDX-1B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92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TDX는 전량 소련에 공급키로 소련 체신부의 구매보장을 받았으며, 이는 소련이 2000년까지 6천만회선을 공급한다는 통신망현대화계획의 25%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한·소양사는 합작공장설립과 관련, 삼성측이 1차연도인 92년까지 제조시설 조립 생산기술제공료등으로 6천1백만달러를 투자하고 ATE측이 공장빌딩 부지, 기능공 인건비등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통신성장관일행이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좌측이 쿠드리 아프체프 통신성장관이고 우측이 정용문 삼성전자 대표이다.

첨단 무선전화기 및 91년형 팩시밀리 시판

삼성전자는 최근 MCA방식의 새로운 무선전화기 2개 모델(모델명 SP-R404/SP-R406)을 개발, 곧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수동 혼선방지기능으로 잡음을 완전히 해소한 삼성무선전화기는 백만개의 비밀번호를 내장하고 있어 타전화기에 대한 도용 및 허위착신을 완전히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20개의 단축다이얼을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전화 번호를 기억시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은 저가형 모델로서 AUTO CUT, 음성응답등 중급기 이상의 기능을 갖춘 91년형 팩시밀리(모델명 COFAX-2300/M)도 선보이고 있다.

(주)금성사

MIRACLE 컴퓨터 신제품 발표회

금성사(대표李현조)는 오는 4월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MIRACLE1000, MIRACLE 9000, MIRACLE 8800, MIRACLEStation 등의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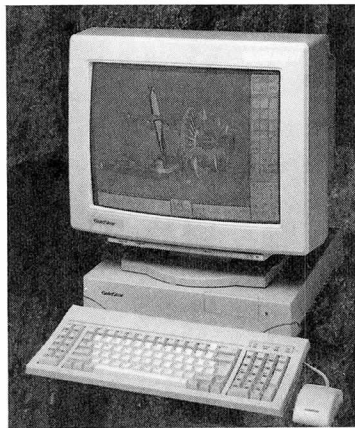
MIRACLE10000은 비상안전장치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첨단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기능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보다 처리능력이 4 배이상 향상된 시스템이다.

CLIENT/SERVER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MIRACLE 9000 시리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컴퓨팅과워용 서버로서 국내최초로 OSF/MOTIF 및 X-WINDOW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또 MIRACLE 8800은 금성이 순수자체기술로 개발한 멀티유저용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이다.

SUN스팍 워크스테이션과 100% 호환성을 유지하는 MIRACLEStation 역시 금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한편 금성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워크스테이션에서 슈퍼 미니컴퓨터까지 통일된 UNIX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MIRACLEStation M20, M25, Server

한국데이터통신(주)

신운식사장 취임식 가져

한국데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9기 주주총회에서 제3대 사장에 申윤식 전 체신부 차관을 선임하고 22일 사옥 14층 대강당에서 신임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申윤식 신임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밝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고의 품질,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태평양화학과 EDI 서비스 계약

한국데이터통신(사장 申윤식)은 최근 국내화장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태평양화학과 데이콤-EDI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개발에 들어갔다.

데이터통신은 3월말까지 EDI-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개발을 끝내고 우선 80여개소에 달하는 태평양화학의 전국 직영영업소와 대리점을 선정,

4월1일부터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전국의 모든 대리점과 협력업체에까지 이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쌍용컴퓨터

골프장관리 SW 패키지 개발

쌍용컴퓨터(대표 :崔병항)는 최근 골프장관리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하여 골프장전산화에 대한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예약관리업무서부터 내장객관리, 경기진행관리, 영업장관리 및 체크아웃시의 요금정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운영계획과 영업통계 산출 및 회원관리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이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32비트 PC인 '드래곤 386'에 맞도록 개발한 쌍용은 저렴한 공급가와 무료 운용교육 제공등을 내세워 골프장에 대한 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에스·티·엠

KIS-LINE서비스 공급

STM(사장 金영태)은 자사의 정보통신망인 STM*NET에 접속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KIS-LINE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한국신용평가(주)와 4월1일 STM*KIS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동사는 이번 계약으로 자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기존 고객에게 별도의 회선료나 시스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정보이용요금만으로 국내외의 각종 경제환경, 금융, 시장, 기업 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의 KETE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TM은 이번 KIS-LINE 서비스에 이어 앞으로 산업기술정보, 특허정보, 무역관련정보 및 해외 DB까지 그 효율성에 따라 서비스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데이타(주)

UCI사와 게이트웨이 공동 개발키로

지난달 12일 포스데이타(사장 成기중)는 IBM의 SANDS(공동통신지원서비스)와 개방형컴퓨터통신시스템인 X400전자우편시스템을 연결, 두 시스템사용자간의

메시지를 상호교환토록하는 게이트웨이를 美UCI社와 공동개발키로 계약을 맺었다.

포스데이타는 이에 따라 1단계로 금년 6월까지 9천여만 원을 들여 UCI社와 영문판 게이트웨이 공동개발을, 2단계인 7월부터는 한글화작업과 아시아언어판 게이트웨이의 자체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포스데이타는 이번 공동개발계약외에도 UCI社의 영문판 게이트웨이의 아시아지역 독점배포권 및 아시아언어판 저작권도 소유하게 됐다.

게이트웨이는 각기 다른 이기종간의 통신방식을 연결,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이다.

현대전자산업(주)

위성사업 본격 참여

현대전자(대표 鄭몽헌)는 지난달 19일 미국의 세계적인 위성사업체인 스페이스 시스템즈 로랄社와 위성사업 기술 협력계약을 맺고 이분야의 본격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는 앞으로 로랄社로부터 위성체 및 지상관제시스템(지구국)에 관한 시스템기술과 사업관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에는 또 로랄社와 함께

오는 95년 발사예정인 3천억 원규모의 무궁화號 위성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는 이같은 기술이전을 계기로 2000년대 초로 계획된 제2세대 위성사업에 대비한 국산기술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는 이미 위성방송용 저잡음 증폭기 및 수신기를 생산, 구미지역에 수출중이며 한국통신의 지구국 개보수사업에 참여하고 데이터통신의 인텔리사트지구국 2기건설사업을 美 GTE SIC社와 공동수주하는 등 위성분야 진출을 추진해왔다.

삼성데이터시스템(주)

일부사업부 사무실 이전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林 경춘)은 3월1일부로 CIM사업본부(CIM기획팀, CIM영업부, CIM개발부, BAS사업부)와 CAD/CAM사업부의 사무실을 인송빌딩 8층으로 이전했다.

주소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8층

전화 : (02)773-5667

팩스 : (02)774-2933

금성정보통신(주)

PC용 다이얼업 모뎀 개발

금성정보통신(대표 鄭장호)이 PC에 내장되는 9천6백 bps급 다이얼업 모뎀을 개발했다.

지난달 5일 금성은 형식승인을 받아 4월부터 공급될 다이얼업모뎀(모델명 GSM 9600MPC)이 대량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 시간및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뎀은 美 헤이즈社의 AT명령어를 사용, PC의 통신 속도에 따라 75bps에서 최고 3만8천4백bps까지 정보전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에러정정 및 데이터압축 기능을 가진 MNP(마이크로네트워킹 프로토콜) 명령어를 채택, 에러발생이 없는 상태로 정보를 압축전송할 수 있어 평소의 통신속도보다 평균 두배이상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금성은 이 모뎀이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표준규격에 맞춰 제작돼 기존장비와의 호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성소프트웨어(주)

“룩킹 글라스” 공급

유닉스(UNIX) 운영체제(OS)의 어렵고 복잡한 명령어 및 기능들을 간단한 아이콘(도형메뉴)만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데스크탑 매니저(Desktop Manager)가 국내에 공급된다.

금성소프트웨어(대표 黃철봉)는 지난달 13일 중소형 컴퓨터에서 OS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닉스와 X윈도우(X-Window), 오픈 룩(Open Look), 모티프(Motif)등의 그래픽 사용자 환경에서 이들을 간단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춘 “룩킹 글라스(Lilking Glass)”를 공급키로 하고 미국의 비직스 소프트웨어(VISIX Software)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유닉스 OS의 수많은 기능들을 키보드 대신 마우스(Mouse)만으로 편리하게 작동시킴으로써 유닉스 OS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별 어려움 없이 필요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금성소프트웨어는 이 제품의 한글버전을 올 8월말까지 개발하여 유닉스 기종(SUN, DEC, HP/Appolo, IBM, MIPS, Interactive, SCO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주) 매일경제신문사

창간 25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매일경제신문사는 창간 25주년 기념사업으로 21일오후 사옥 강당에서 「한·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현황과 정보활용」이란 강연회를 개최했다.

국내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정보마인드확산을 위해 일본경제신문사와 공동개최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4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데이터통신의 金대규 상무와 일본경제신문의 가지타스스무 DB국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삼보컴퓨터

맨섬사의 메인 컴퓨터 공급

삼보컴퓨터(대표 金宗길)가 비상안전시스템이 갖춰진 美 탠덤社의 인테그리티S2메인컴퓨터를 공급한다.

지난달 12일 삼보는 인테그리티S2가 3중구조의 CPU(중앙처리장치)와 2중구조의 메모리등으로 구성돼 컴퓨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운용중에도 임의로 하드웨어모듈을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보는 美 탠덤社및 한국컴퓨터와 3자계약을 체결, 이를 독점공급하게 됐다.

코오롱정보통신(주)

시스템사업 적극 추진

코오롱정보통신(대표 宋대평)은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 하드웨어와 함께 턴키베이스로 공급하는 시스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계약회사업무중 가장 중요한 영업관리업무를 비롯, 생산관리·마케팅·인사급여관리·재무회계관리·구매자재관리등으로 구성돼 있는 이 시스템은 중형컴퓨터(IBM AS400)

에 맞춰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업체에 공급 각종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코오롱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적극 나서 이미 개발된 호텔관리·골프장관리외에 섬유·건설·전기·전자·무역등 각종 패키지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한편 고객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바로잡습니다〉

3월호 65페이지 회원업체명단중 53번 업체명을 KIST 시스템공학연구소로, 61번 업체명을 동진정보통신(주)·주소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0-13 서경빌딩으로, 68번 업체명을 (주)한국법률정보시스템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인사이드

한국이동통신(주)

▼ 홍보실장 李在土(2월27일자)

(주)한국경제신문사

▼ 뉴미디어국 부국장대우 李熙浩(2월27일자)

한국정보통신(주)

▼ 전무이사 河濟俊(3월4일자)

▼ 이 사 文亨根

▼ 이 사 張錫源

한국IBM(주)

▼ 대표이사 吳昌圭(3월13일자)